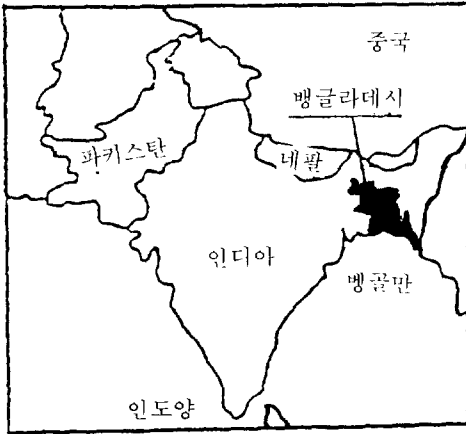


방글라데시

변종달
(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)



1. 개황

방글라데시(Bangladesh)는 인도반도의 동편에 인접한 나라로서 우리에게 동파키스탄으로 귀에 익은 나라이다. 1971 년도의 치열한 독립전쟁을 거쳐 파키스탄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었다.

면적은 약 14만km로 남한의 약 1.5배 정도이나 인구는 이미 1억을 넘어섰다. 문맹율이 76%이고 국민1인당 GNP는 약 20\$정도에 불과해 이디오피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빈국(貧國)이다.

2. 기후와 재해, 풍습

여름엔 섭씨 40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도 영상의 온도가 계속 되며 습도가 연중 80~95%에 이르는 고온다습한 기후가 계속된다.

이곳엔 인도양에서 생긴 사이클론(cyclone)이라는 태풍이 자주 덮쳐와 피해가 아주 심하며 연례행사처럼 대홍수가 닥쳐와 엄청난 피해를 내고 있다. 작년에도 전국토의 2/3이상이 1개월 이상 침수되어 200만호 이상의 가옥과 3/4이상의 농경지가 유실된 대홍수가 있었다.

또 이곳은 국토가 거의 삼각주로 구성되어 있어 돌(石)이 없다. 때문에 벽돌을 깨서 골재로 쓰고 있다. 도로, 건축공사장 등 곳곳에는 벽돌을 깨는 작업 광경을 볼 수 있다.

- 이곳은 불(火)이 귀해서 가스버너를 끄지않고 계속 켜놓고 있으며 담배불은 노점에서 황마(黃麻)로프에 불을 붙여두고 사용하고 있다.
- 버스에는 승객들이 앞뒤문에 주렁주렁 매달리는(?) 형편이며 보통 열차엔 아예 시봉위에게까지 탈 수 있도록 사다리가 설치되어져 있다. 좁은 땅에 엄청난 인구가 사는 나라의 비극이다.
- 좋다(同意)의 표시는 머리를 살짝 옆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하니 우리와는 반대가 된다.
- 오른손과 왼손은 각각 용도가 다르다. 오른손은 음식을 먹을 때, 인사할 때 사용하고, 왼손은 용변처리용(왼손으로 물로 씻는다. 그러므로 종이 필요가 필요없다)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인사할 때 왼손을 내밀면 큰 실례가 된다.

3. 한국과의 관계

우리나라의 교민이 약 500명 정도가 진출해 있으며 상사, 건설회사직원, 봉제, 식당, 하숙, 선교요원 등이 대부분이며 특히 식당겸 하숙집이 성업중이라고 한다.

4. 자무나강 횡단 송전공사

방글라데시를 동서로 양분하는 강폭이 약 12km(한강의 10배)나 되는 자무나강을 횡단하는 높이 110m의 수중철탑 11기를 설치하는 대공사를 1984년도에 우리나라의 고려개발(株)에서 수주해서 1년여에 걸친 공사끝에 완성하게 되었다. 여기서 특기할만한 일은 이 철탑설계를 당학회의 이재숙(李在淑)회원이 맡아서 했다는 점이다. 이것은 우리학회만의 긍지를 넘어 우리나라 기술인의 긍지를 세계에 과시한 장거라 하겠다.

*본 원고는 전우클럽모임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, 편집한 것이다(편집자註).